

과학의 즐거움 속으로… 14일 장수과학축전 개최

장수교육지원청은 오는 14일,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 및 아외공간에서 '2025 장수과학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축전은 유·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융합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정기 될 전망이다.

총 24개의 체험 부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3D펜 창작, VR 체험 SW·AI 코딩활동, AI디지털교과서 체험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활동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과학 미술과 '솜사탕 로봇 체험'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장수교육지원청 측은 "장수과학축전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연인 학생들이 과학을 즐기고, 푸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청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과학축전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탐구력을 신장시키고 지속적인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한국 육상의 위상 끌어올렸다'

의산시청, 국제·전국 육상경기대회 메달 수여식…김태희·오혜원 '금메달'

또 한 번의 한국기록을 경신한 김태희 등 의산시청 소속 선수들이 한국 육상의 위상을 끌어올리며 지역에도 웃음을 안기고 있다.

의산시는 10일 시청에서 메달 수여식을 개최하고,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의산시청 육상팀의 땀과 노력을 치하했다.

이번 수여식은 이달 경북 예천에서 열린 '2025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와 '제58회 KBS배 전국육상 경기선수권대회'에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축하하고, 의산의 위상을 높인 성과를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육상팀 김태희 선수는 지난 7일 열린 코리아오픈국제 육상경기대회 여자 해머던지기 부문에서 64m70을 던져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기록은 김태희 선수 본인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유한 기존 한국신기록 64m14를 경신한 수치다.

김 선수는 지난 5일 KBS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데메탈리스트인 김 선수는 꾸준한 훈련과 실전 감각으로 한국 해머던지기의 새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

또한 육상팀 오혜원 선수는 KBS배 전국육상경기선수



권대회 여자 1500m 부분에서 힘찬 레이스 끝에 금메달을 차지하며, 중장거리 부문에서도 의산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주형 의산시청 육상팀 감독은 "의산시의 꾸준한 지원과 시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현을 의산시장은 "선수들이 보여준 값진 성과는 큰 감동이자 자부심이 됐다"고 전했다.

/의산=이재준기자



## 무주농협, 생명보험 'TOP CEO' 수상 쾌거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10일 2025년 전북 농축협 생명보험 'TOP CEO'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북농협 정례조회 자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5년 3~4월 평가결과 C그룹에서 1위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게 되었다.

무주농협이 지역 조합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사업에서 탄탄한 실적과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와 실적향상을 동시에 이룬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며, 특히 고객 중심의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사회와의 신뢰 기반 형성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수상하게 되었다.

무주농협 곽동열 조합장은 "이번 TOP CEO 수상은 무주농협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지역민과 조합원의 신뢰 덕분"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정읍시의회,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관광 콘텐츠 발굴 연구회'(대표 최재기 의원)가 지난 지속 가능한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읍시 관광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최재기 대표의원과 고경윤, 황혜숙, 이민재, 고성환 의원이 참여하며, 11월까지 지역 내 관광지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광객 유입 확대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디자인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운영 일정과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한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직원들 충훈탑·위폐봉안소 일대 정비

정읍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훈탑과 위폐봉안소 정비에 나서며 충무공원에 다시금 묵직한 울림을 전했다.

지난 8일, 시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충무공원 내 충훈탑과 위폐봉안소, 충무계단 일대를 찾아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잡초 제거, 비석 정화, 쓰레기 수거 등 충훈시설 전반에 걸친 정비로 이뤄졌다.

정읍 충무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순국한 정읍 출신 희생자들을 기리는 뜻으로 조성된 장소다. 그중 충훈탑은 국민 성금으로 1969년에 세워졌으며, 위폐봉안소는 1987년 조성된 육군중령故전순기 등 3419명의 위폐가 봉안돼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남원시보건소, 노인 무료 스케일링사업 제공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올해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제공한다.

올해는 보건소 종축 공사로 인해 구강보건실이 기준 위치에서 보건소 2층으로 이전하여 더욱 괘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구강진진과 무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스케일링·블소도포·스울버른 치수질 교육을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환경보호의 체험을 통해 배우고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실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김제시, '구강보건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기념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구강건강에 관심을 높이기며 구강위생 실천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진흥과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0년 함께한 구강 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으로 △구강민원 관련 교육용품 등 기자재 전시, △구강건강다짐 포토존, △어린이 구강보건실 견학, △가두 캠페인 △천시무료급식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다.

2일에는 지역주민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검진 및 올바른 칫솔질을 강조하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5일에는 김제 제일아린이집 어린이들의 구강보건실 견학, 등 구강건강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순창소방서, 전기차 화재대응능력 강화 순회교육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6월 10일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덕유산 어사길과 외인동굴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복지관은 참여자의 근로 의욕 향상과 휴식 그리고 참여자 간 소통, 친목 도모를 위해 매년 1회씩 나들이를 기획하는데 올해는 국립공원데유산민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일찬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숲 해설사가 덕유산의 이름다툼과 자연 치유에 대하여 설명 해 주었고 외인동굴에서 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한 족욕 체험으로 피로를 잊게 해 주었다.

참여자는 자연의 나라 무주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김제시 치매재활과, 포도밭서 농촌 일손 돋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치매재활과가 10일,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돋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포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포도 수를 다듬고 수확을 돋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에는 약 20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농가와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농촌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생활상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농가 관계자는 "최근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참여해 준 치매재활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농촌 현장에서 직접 일손을 돋다보니 지역 사회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 대강면, 사랑의 밀반찬 나눔행사 열려

남원시 대강면 새마을 지도자(회장 황인범)와 부녀회(회장 배춘자)는 지난 9일, 행복문화센터에서 사랑의 밀반찬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대강면 새마을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회원들이 여름철 계절 음식인 열무佥을 직접 만들어 독거노인 및 마을회관 50곳에 2kg씩을 전달하였다.

한 어르신은 "맛있는 김치를 먹고 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겠다"고 감사를 전했으며, 황인범 회장은 "작은 봉사와 나눔으로 우리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하겠다"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